도깨비 Episode\_9

그러니까 그 검을 빼면 아저씨가 없어진다구요? 이 세상에서 아주?

도깨비의 불멸을 끝낼 소멸의 도구, 그게 도깨비 신부의 운명이야.

너 조차 한번 죽일 뻔 했었지 네 손으로 직접.

움직여요.

네가 검을 빼면 그자는 먼지로, 바람으로 흩어질 거야. 이 세상 혹은 다른 세상 어딘가로 영영.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기타누락자. 혹시 공범이다, 한 패다 생각한다면 그건 억울해. 말 하지 않은 건 김신 그 자고 난 성심 성의껏 답변 했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도 난 너랑 한 패야.

말씀 감사합니다. 쉬세요.

★

여기도 우리 집이 아니었구나. 이번 생엔 집이 없나 보다. 가자 메밀군. 가버리자.

★

저기요? 오랜만인데 술 한잔 할래요?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나서.

술 살 건가? 내가 지금 카드가 없어서.

그렇게 100년을 살아 어느 날, 날이 적당한 어느 날, 첫사랑이었다, 고백할 수 있기를 하늘에 허락을 구해본다.

★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은?

너와 함께 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네 잘못이 아니다.

그게 작별인사였어? 아 진짜 죽여버릴까?

그 날 기타누락자는 누군가의 눈물 속을 오래 걸어갔다고 한다. 가능하면 도깨비에게서 죽음이 멀어지도록.

얘 없어, 안 들어왔어, 전화도 안돼, 얘 아무래도 가출한 것 같아.

그게..

옥장판 가방도 없어 메밀군도 없어.

그게.. 메밀군이 뭔데?

바닷가에도 없어. 학교에도 안 왔대. 캐나다 처음 따라 들어왔던 도서관 근처에도 없고 두 번째 소환 했을 때 갔던 공원 근처에도 없어.

지은탁 본 귀신.

너 맨날 닭 사오는 곳 어디야? 지은탁 알바하는 닭 집, 귀신들도 은탁이 행방을 몰라.

너 이걸 들고 다녀?

찾을 거 같아서. 사실 범인은 나야. 내가 다 얘기 했어.

뭘? 너 설마..

어, 검 뽑으면 네가 죽는다고 다 애기했다고.

미쳤어?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 나보고 절대 애기하지 말라더니.

그랬는데 이번에도 역시 난 기타누락자랑 같은 편이라.

뭔 오지랖이야, 뭐가 같은 편인데?

네가 죽는걸 원하지 않아. 다른 뜻은 없어 그저 네가 무로 돌아가면 조금 심심할 것 같아서. 화 내도 돼.

화를 어떻게 내 화를. 나 죽으라고 고사 지내던 자가 죽지 말라는데. 먹는 무가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 쿠폰 사용은 좀 자제해주면 고맙.. 이런, 진짜 우정이 생겨버렸군.

TEXT ON THE SCREEN

알바구함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우연히 마주쳐도 인사하지 말구요. 해피 뉴 이얼.

오라버니? 왜 내 가게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죠? 혹시 알바 구해요?

그게 아니라 이 집 알바생을 찾는 중이라.

이천오백? 옷, 시계, 구두.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략 이천오백 가량 처발처발(처바르다: 마구, 많이 바르다) 하신 분이 시급 6030원 받는 우리 알바생과는 무슨 사이인데 찾지? 혹시 애 울린 사람이 당신이야? 눈칫밥 먹이고 나랏일 했다는 그 자식이세요?

울었습니까?

맞구나? 내 알바생 자른 사람. 하 사이즈 딱 나왔네, 내가. 당신 혹시 유부남이야? 그래서 애 그렇게 보낸 거고?

혼인은 전이나 신부가 있으니 그리 봐도 무방하고 그럼 또 봅시다. 보다 복잡한 인연은 나뿐만이 아닌 것 같으니

이봐요 그게 무슨, 이봐요 거기 오라버니!

못 찾았어?

은탁이 서류 안 올렸댔지? 일단 서류부터 올려줘.

무슨 서류?

기타 누락자 서류. 명부에 올려야 걔가 죽을 날이라도 받아 보지.

너 아주 애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지 왜?

어디서 어떻게 죽는지 알아야 네가 가든 내가 가든 할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기타 누락자가 왜 죽어? 내가 그럴 뜻이 없는데.

더 큰 뜻이 있나 보지. 우린 대체 뭘까? 저승사자 도깨비 둘씩이나 있는데 애 하나를 못 살려.

서류 올리고 올게. 근데 그 사이에 혹시, 설마 그럼 어떻게 해?

갔다 와. 목숨이 오가는 순간이면 느낄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그 아이가 간절히 찾는 게 나라면.

★

전에 말했던 기타누락자 서류야. 되도록 빠르게 처리해 줘. 급한 건이야.

내일 오후까지.

늦어.

오늘 자정 전이요. 지은탁? 얘 걔 아닙니까? 접때 버스 정류장에서 선배님이 명단 찾으시던

얘 누굽니까?

도깨비 신부.

예? 아니 이분 진짜요? 아 그래서 그때 도깨비 선생님께서 거기 계셨던 겁니까?

샌드위치를 든다. 먹는다. 먹으면서 깨닫는다. 아, 내 아부가 과했구나, 닥치자. 실시!

네!

★

그 사람들 여기 안 살아, 이사간지 한참이야! 아주 정말 귀찮아 죽겠네 뭔 놈의 빚을 얼마나 졌길래 맨날.

죄송합니다.

어디 사는 거야, 얘는.

지은탁 왜 찾아?

수능 성적표가 나왔는데 은탁이가 안 나와서요. 제가 반장이거든요. 아저씬 누구세요? 지은탁이랑 어떻게 아시는데요?

잘. 이 성적표는 내가 전달하지 잘.

TEXT ON THE SCREEN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험번호 | 성명 | | 생년월일 | 성별 | 출신고교(반 또는 졸업년도) | | | |
| 33112311 | 지은탁 | | 98.09.13 | 여 |  | | | |
| 과목 | 한국사 | 국어 | 수학영역 | 언어  영역 | 사회탐구 영역 | | 제2외국어  /한문 영역 | |
| 나형 | 생활과 윤리 | 사회.문화 | | 일본어 1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145, 151

이걸 뭘..

이 정도면 잘 본건가?

네?

아 네. 이 정도면 인서울(서울에 있는 대학교)은 다 간다고 보면 되죠.

그 와중에 기특하군.

★

어쩌라고?

미리 미안하다. 내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이거 네가 갖다 줘. 저승사자도 양말은 돈 주고 사신을 거 아니야.

속보입니다. 짙은 안개가 고층 빌딩의 몸통을 잠식해 빌딩 꼭대기만 우뚝 솟아있습니다. 때 아닌 안개는 신의 한 수인 듯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TEXT ON THE SCREEN

“짙은 안개가 고층 빌딩 몸통을 잠식해”

속보입니다. SF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 장면은 오늘 서울의 밤하늘 입니다. 도심 빌딩 숲 사이 슈퍼문이 괴기하게 떠있습니다. 대낮 안개에 이어 이상하리만치 붉은 색을 띄는 슈퍼문의 등장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TEXT ON THE SCREEN

“불길하게 거대하고 이상하게 붉은 슈퍼문”

빨리 그 검 뽑아. 검 뽑고 무로 돌아가. 네가 무로 돌아가지 않으면 은탁이가 죽어.

내가 만약 그 선택을 하는 경우 준비하신 변명 꼭 있어야 할 겁니다.

★

아버지.

오후 8시 15분 환자분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김기중, 68세 사인 과다출혈.

아 뜨거. 아 뜨거!

아부지.

어?

아버지? 아버지 살아나신 거예요? 피가 이렇게 철철 막 그.. 출혈이 과다인데 이거.. 일어나신 거예요?

★

제 눈앞에서 글쎄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다시 살아서, 과다출혈인데 혈색이 좋더라니까요? 아니 뭔 명부가 불에 홀랑.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그게 도깨비 불이면. 네 것이었나 보다.

이게 뭡니까?

도깨비의 사과.

사과? 양말인데요?

★

미리 사과하면 다야? 사고는 네가 치고 왜 야근은 엄한 저승사자가 해야 돼? 감히 명부를 태워? 영원히 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너희 내외의 비극적 운명은 매우 유감이야. 그렇다고 이렇게 인간사를 어지럽히면 어쩌자는 거야, 이 몰상식한 도깨비야!

그냥 누구 좀 보라고, 신이 보면 좋고, 은탁이가 보면 더 좋고.

네가 그렇게 끝내면 내가 뭐가 돼? 괜히 말했어. 그냥 기타 누락자가 확 검 뽑게 뒀어야 되는 건데.

그러게. 그게 나았을지도.

★

TEXT ON THE SCREEN

국일신문

서울 한복판의 불길한 안개, 신의 한숨인가?

이 세상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존재들이 섞여있지. 어떤 때는 우리 곁에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생각엔 자네도 이미 알고 있었듯 싶은데?

유재신 씨.

미안하네.

에헤이.

늙지 않는 한 남자를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

제가 만들었던 여권, 니스에 마련했던 거처들. 저를 부러(일부러) 덕화군 곁에 두신 것도 제가 스스로 그 존재를 인지하길 바라셔서 하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존재에 대해 혹 어딘가에 발설한 적 있는가?

없습니다.

실은 자네를 뽑은 것도 그 존재일세. 뒷골목에 꿈 없는 소년에게 검정고시를 보게 하고, 꿈을 갖게 하고, 대학에 진학시킨 얼굴 없는 독지가가 누구라고 생각하나? 기억하게. 그분의 진짜 함자는 김(金) 가 성에 믿을 신(信) 자를 쓰신다네.

★

이봐 김신 씨, 슈퍼문에, 안개에, 그거 다 삼촌이지? 아니 무슨 집 나간 여고생 찾는 걸 ‘세상에 이런 일이’(TV 프로그램: 이상하고 신기한 일 들을 소개해 줌) 로 해? 나 이러다가 진짜 NASA에서 삼촌 잡아갈까 봐 너무 겁나.

너 술마셨어?

어제 마셨고, 이제 다 깼고. 암튼 내가 그 소녀 딱 찾아내면 삼촌 나한테 뭐 해줄 건데? 나 카드 줄 거야?

나도 못 찾는데 니가 무슨 수로.

멀리는 못 갔을 거야. 걔 돈 없잖아. 어딜 가봐야 대한민국이고 뭘 타봐야 고속버스겠지. 다 나만의 방법이 있다니까.

★

어서 오세요. 아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네.

어후.

TEXT ON THE SCREEN

“짙은 안개가 고층 빌딩 잠식해”

“불길하게 거대하고 이상하게 붉은 슈퍼문”

그 소녀 찾았어. 지금 스키장에 있어.

만약에 내가 신부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어.. 이 검을 못 뽑아. 이건 너밖에 못하거든. 이 검을 뽑아야지 내가, 내가 예뻐져. 지금은 안 예쁘잖아. 니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웃으면 미친놈이거든?

하아, 미친놈.

오늘은 말고, 오늘은 그냥 너랑 웃고.

첫눈 오면?

첫눈?

빗자루 필요하잖아요.

응. 첫눈 오면.

하아 눈이 너무 많다.

집에 가자. 너 혼자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나 집 없어요. 내가 집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전부 다 내 집이 아니었어요. 그저 가까이 둔 거죠. 누군가는 보험금 때문에, 누군가는 죽고 싶어서. 이제 다 아는데, 내가? 도깨비 불멸을 끝낼 소멸의 도구라던데, 내가?

말할 기회를 놓쳐고, 기회를 놓쳐서 좋았고, 가능하면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기회를 놓칠 참이었어. 근데 그럼 안 되는 거였어. 이 검에 묻힌 수천의 피를, 그 한 생명의 무게를 내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 검 빼. 부탁이야.

아니요? 싫어요. 죽어도 싫어요. 그러니까 나 찾지 마요. 나 찾지 말고 각자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요 우리. 나한테서 멀리 가서 그냥 오래오래 사시라구요. 김신 씨는. 알겠어요? 다신 나타나지 마요. 또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땐 진짜 죽여버릴 거니까.

★

어서 오세요.

시험 잘 봤더라.

이것도 핑계라고.

이 핑계라도 생겨서 반갑더라. 이렇게라도 너 보러 와도 되는 핑계.

나 보러 와서 어쩌자구요. 핑계 생겨 뭐 어쩌자구요. 같이 살자고, 같이 죽자고? 내가 다시 나타나면 죽여버린다고 했냐고, 안 했냐고. 좋아요, 이리 와요, 검 뽑아 줄게요. 그게 그렇게 소원이면 뽑아 드린다구요. 오라구요, 얼른. 하아, 이 양반이 끝까지. 하지 마요.

해. 해야 돼.

놔요! 놔요! 놔! 놓으라고. 놓으라고. 그때부터였어. 그 호텔에서 작정하고 그때부터 이러려고.

아저씨, 저 사랑해요?

그게 필요하면 그것까지 하고. 사랑해.

그래서 나 사랑하긴 했어요? 아니에요? 그것조차 안 했어요?

무서워. 너무 무섭다. 그래서 니가 계속 필요하다고 했으면 좋겠어. 그것까지 하려고 했으면 좋겠어. 그런 허락 같은 핑계가 생겼으면 좋겠어. 그 핑계로 내가 계속 살아있었으면 좋겠어. 너와 같이.

★

안녕하세요. 손님 개인 심부름이요. 엣지 왁싱. 한 시간 안에 해달라 하시는데요?

김 과장, 얘는 왜 안 오는 거야? 난 지금 교대니까, 뭐 오겠지. 기다려 봐요.

네. 으으.

★

왜 혼자야? 기타 누락자는? 못 만났어?

만났어. 근데 안 오겠데.

대체 무슨 일이야, 서류 올리길 기다린 듯이 나온 명부는 처음이야. 기타 누락자의 명부가 왔어.

TEXT ON THE SCREEN

지은탁

십구세

2016년 12월 12일 오후 8시 11분 동사

은탁이 확실해? 빈 종이잖아.

있어, 글씨. 대체 이 상황 뭔데? 꼭 누가 죽으라고 등 떠밀듯이. 그게 나도 아니고, 너는 더더욱 아닐 텐데.

나일 거야. 내가 죽어야 걔가 산대. 내가 살면 걘 죽는대. 그게 그 아이와 나의 운명이래. 이게 내게 내려진 벌이었어. 신의 더 큰 뜻이었어. 이게.

약한 소리 마. 신의 뜻이 그렇다고 해도 내 뜻은 그렇지 않으니까, 너도 그럴 거고. 앞으로 한 시간 뒤, 사인 동사. 서둘러.

★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통화료가..)

그 아이 앞에 자꾸 죽음이 닥쳐 올 거야. 이미 여러 번 그랬을 걸? 앞으론 더 할 거야. 지금까지 있었던 사고들 보다 더 자주, 점점 세게.

첫눈이에요, 아저씨! 근데 왜 벌써 첫눈이 오지? 우와, 신기하다.

니가 계속 필요하다고 했으면 좋겠어. 그것까지 하려고 했으면 좋겠어. 그런 허락 같은 핑계가 생겼으면 좋겠어.

필요해요, 그것까지 해요. 사랑해요.

★

지은탁 씨, 정신이 드세요? 여기 병원입니다. 저체온증과 경미한 뇌진탕 증상을 보였는데 다행이 괜찮아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 일 날 뻔했어요.

아 저 얼마나 이러고..

하루하고 반나절 지났습니다.

아 그럼 입원비가 얼마나..

무슨 그런 걱정을. 근데 천우그룹 유신우 회장님과는 관계가..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입원 수속을 하셨어요. 아주 병원이 난리가 났었는데.

아..

원하시면 퇴원하셔도 되지만 제 소견으로는 조금 더 안정을 취하시면서..

죄송하지만 그보다 혹시 성냥이나 라이터 가지고 계신 분..

예?

★

안 오는 줄 알고.. 이제 안 오는 줄 알고, 내가..

미리 와 기다렸지.

누가 미리 오래요? 누가? 내가 촛불 불면 와야지! 거기로 왔어야지! 내 눈 앞에 있어야지!

미리 와서 손 잡아 주려고 했지, 난.

몰라요. 됐어요.

나도.

뭐요?

모르면 됐어.

다 아는데..

그럼 좋고.

나 고백할 거 있어요. 저 이제 아저씨한테 보이는 게 없어요. 키가 크고, 옷이 비싸 보이고, 눈이 엄청 멋지고 보이는 게 그게 다예요. 그래서 나 이제 아저씨 검 못 빼줘요. 웃어도 안 빼줄 거예요. 제 눈엔 아저씨 지금도 엄청 예뻐요.

★

얼굴 하얗고, 입술 빨갛고. 까만 옷에 종종 까만 모자를 들고 있어요.

아이고!

왜, 왜요?

혹시 통성명했나? 그 놈, 저승사자야. 아 내가 뭐랬어, 까만 모자 쓴 남자 조심하랬지!

먹고는 살아요? 나 말고 손님은 와? 이 양반아 남자를 조심하면 노처녀는 연애를 못해요. 저승사자? 뭐 좀 그럴듯해야 부적이라도 쓸 거 아니야. 그럼 이 남자는 누구야? 키가 되게 커, 나보단 오라버니 같고 약간 공룡상에, 목소리가 듣고 있음 되게 막 세상에서 제일 작은 카페에 와 있는 기분이랄까? (공유가 하는 KANU 광고: https://www.youtube.com/watch?v=1ObiZp7TxuY)

공유?

계세요, 그럼.

어디서 반짝거리는 물건 하나 받아왔나?

그건 또 어떻게 알았대?

얼른 갖다 버려. 원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물건 함부로 들이는 거 아니야. 거기 뭐가 담겼을 줄 알고, 원주인의 한, 죄, 그리움, 다 깃드는 법이야.

★

뭔 한이, 뭔 죄가, 뭔 그리움이 담겼으려나. 그나저나 김우빈 이 부장님은 또 잠수네.

미안합니다. 본의 아니게.

사람이 꼭 구질구질하게 먼저 연락을 해야 되고, 진짜.

바빠요?

TEXT ON THE SCREEN

새 메시지

김우빈

바빠요?

네, 미치겠어요.

지금 뭐하세요?

패턴 풉니다. 끄려고요. 또 소리 낼까 봐.

TEXT ON THE SCREEN

59초 후에 다시 시도하세요.

왜 또 연락 안 해요?

그건 첫 째, 당신의 기억을 지운 미안함 때문이고, 둘 째.

대체 누구신데 이렇게 사무칩니까..

제가 바람이 난 것 같기 때문입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이런 제가 정말 혼란스럽고. 문자가 왔네요.

보고 싶어요.

TEXT ON THE SCREEN

선희아니곳ㅅㅓ니

보고 싶어요.

저두요.

나 왜 자꾸 이래? 아니야, 못 들었어. 나는 못 들었다, 나는 못 들었다, 못 들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나와! 어디 한낱 미물이 사람한테 해코지야! 나와! 아니, 나가! 사라져! 안 그럼 노래 또 부른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

왜 빈손이야? 짐은? 집에 가는 거 아니었어?

알바 가는 거였는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여기 페이가 얼마나 센데요, 안 잘린 게 다행이지. 우리 할 일 딱 마무리하고 소고기 사 들고 금의환향 하십시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있을 건데, 여기?

뭘 언제까지예요, 스키장이 2월 눈 다 녹을 때까지. 먼저 올라가세요.

2월? 유 회장. 어, 유 회장, 날세. 자네 인맥으로 누굴 좀 신속히 잘라 줬으면 하는데. 안 그럼 내가 스키장 눈 다 녹여볼까 하네, 신속히. 뭘로 할 까?

★

다녀왔습니다. 죄송해요, 걱정 많이 하셨죠?

난 조금. 많이 한 건 이 자. 찾아낸 건 덕화.

데려온 건 나.

돌아올 곳이 있는 게 처음이라 기분이 이상해요. 이젠 여기가 진짜 내 집 같고.

얘 또 시작이네. 아 넌 뭐 묻기만 하면 사연이.. 어? 어디 무서워서 돌아오라고 하겟냐?

그냥 입어. 넌 나랑 같이 가야지.

우리 아저씨 어디 데려 가시게요? 나, 그거 좀 민감한데?

(우리.. 라고 했다)

다 들린다고 이 오그라드는 도깨비야. 우리라고 해서 좋대. 빨리 따라와! 메밀군 놓고!

★

TEXT ON THE SCREEN

사유서

근데 이 사유서 누구한테 내냐? 직접 내냐?

거기까진 안 올라가 그거 챙겨 보기 싫어서 우리 만들었겠지.

글씨체가 다르면 안 되지 않냐?

왼손으로 썼다고 할 테니까 넌 그냥 쓰기나 해!

근데 예쁘더라, 니가 자주 가는 치킨 집 사장. 올.

만났어? 너 혹시 쓸데없는 얘기 한 건 아니지?

쓸 데가 있는 얘긴 아니었지.

너 말했어? 나 저승사자인 거?

너도 말했잖아, 나 검 뽑으면 무로 돌아가는 거.

에이, 너 진짜 말했어? 진짜? 와, 너 어떻게, 너 진짜! 오오오오 어떡해 어떡해!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저기 정말 죄송한데, 제가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화.. 화장실 좀!

인간 맞지?

망자는 아니야. 여기 인간은 못 들어 오는데?

우와.

어어, 제발요! 어어 나 어떡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인간의 간절함은 못 여는 문이 없구나.

보고도 믿을 수가 없다.

안 보이는 신도 믿으면서 보이는 인간의 간절함은 왜 못 믿어? 그게 인간의 의지라는 거다. 스스로 운명을 바꾸는 힘!

망자의 찻집에 인간이 영역 표시라니.. 이 사유서는 또 어떻게 써. 앉아, 이것도 니가 써. 너 땜에 부정 탔어.

집에 가서 덕화 시키면 되잖아.

★

남자친구 있으세요?

하아.

저는 지은탁이라고 하고요, 제 나이 아홉 살에 조실부모하고 사고무탁하여..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 물어보세요. 참고로 저는 사장님 조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따 약속 있니?

아니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1일이다. 일해.

네. 알아서 척척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더 좋은 데로 오셨어요?

아휴, 인생 모 아니면 도야. 아파트 전세 뺐어. 넌 어떻게 알고 왔어? 전화도 없이?

저만의 비법이 있달까요?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

야, 너 거지야? 어떻게 초딩이 천 원도 없어.

형들도 없잖아!

그러니까 니가 갖고 오라고, 그럼 우리는 있지.

아! 때리지 마! 장풍!

얘 미쳤나 봐. 장풍이래.

니가 이렇게 만화만 보니까 니네 엄마가 도망가는 거야.

야! 사내 자식들이 비겁하게! 이리 와! 니들도 맞아 봐! 이리 와! 괜찮아? 언젠간 쏠 수 있을 거야, 진짜 장풍. 집이 어디야? 가까워? 에휴.

★

발표 났을텐데, 아 어떡해. 아 모르겠다. 어떡해.

TEXT ON THE SCREEN

연희대학교

조회결과

연희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수험생: 지은탁

수험번호: 170913

축하합니다. 수시모집에 합격하셨습니다.

닫기

어떡해. 대박. 아 대박! 자, 그럼 이제 등록금 고지서를 뽑아 보십시다!

★

에러난 게 아니구요, 어떤 분이 대납(대신 납부함)하셨어요. 확인 전화 오면 꼭 본인 이름 전해 달라고 하셨구요. 김신 씨 라고.

김신 씨, 제 등록금 내셨어요?

거 참, 그렇게 비밀로 해달라 그랬는데 결국.

꼭 대신 내줬다고 전해 달라고 했다던데?

으흠, 그쪽에서 하도 이름을 묻길래, 내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 하도 수험생 이름 물었는데 계속 본인 이름 댔다던데?

이게 대학 합격 및 입학 선물로 괜찮으려나 모르겠네, 이 예쁜 게?

괜찮아요! 짱, 대박, 완전, 우와! 괜찮아요!

괜찮을 줄 알았어. 합격 축하해!

언니가 진짜 그리웠어. 가방, 향수, 오..

오백은 없어. 그걸로 등록금 냈어.

아저씨?

너무 감동하지 마, 빌려주는 거니까.

그니까요. 왜 처음엔 그냥 줘놓고 지금은 빌려 줘요?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해요?

이 집에 사람 너밖에 없는데 그걸 아직도 모르면 어떻게 해.

대박.

한 달에 5,208원씩 80년에 걸쳐 갚아. 한 달도 빼면 안 돼.

80년이나요?

어. 더 빨리 갚아도 안돼. 왜, 싫어?

아니요, 아저씨 의지가 이 정도면 저 결심했어요. 마음 먹었어요 제가.

뭘?

데이트요.

★

바보, 나 스키장에 있을 때 성적표가 아니라 이 가방 갖다 줬으면 냉큼 따라왔을 건데.

와, 내가 딱 그러려고 했는데.

저승 아저씨가 말렸구나?

어.

역시 저승 아저씨가 목숨 하나 살렸네, 안 그랬음 내가 그 자리에서 죽였을 건데.

내 거 먹지 말고 네 거 먹어.

제 거 다 먹었어요.

웃으면서 계속 먹지 말고.

한 입만요. 근데요.

또 뭐.

이것들 어딘가에도 사랑이 있을까요?

잘 찾아 봐, 나름 넣는다고 넣었는데..

★

말씀하셨던 여고생 및 여대생이 선호하는 선물 리스트입니다.

방탄소년단? 이 소년들을 뭘 하는 소년들인고?

♬왜 내 맘을 흔드는 건데, 흔드는 건데

음 마음을 흔드는 일을 하는 게로구만.

요즘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엑소? 엑소는 술인가?

아닙니다.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허허허, 비서는 참으로 극한 직업이지, 그럼 그럼.

항상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3번으로 하겠네.

어 음..

TEXT ON THE SCREEN

<여고생 및 여대생이 선호하는 선물 리스트>

|  |  |  |
| --- | --- | --- |
| 순위 | 종목 | 서명 |
| 1 | 방탄소년단 싸인 |  |
| 2 | 엑소 티켓 |  |
| 3 | 디카 |  |
| 4 | 최신형핸드폰 |  |

나도 디카는 안다네.

아, 예.

허허허.

★

지은탁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간이 영원처럼 기억되길 바라며.. 유신우

TEXT ON THE SCREEN

지은탁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간이 영원처럼

기억되길 바라며..

유신우

아이, 깜짝이야!

아이구, 아유 놀래라.

너 여기 언제부터, 왜 때문에 있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놀라요? 뭐 잘못 했어요?

내 얼굴 땜에 놀란 거야. 잘 생겼지. 하아, 지나치다, 지나쳐.

돈도 없다면서 왠 카메라예요?

아, 이거 네 거야.

이게 왜 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 내 셀카는 내가 주는 선물.

진짜요? 하아, 감동이다.

난 여태껏 선물이라곤 건물 밖에 못 받아 봤는데.. 넌 디카도 받고 좋겠다.

회장님께 진짜 진짜 감사하다고 전해 주세요. 제 카메라는 저한테 주시구요.

10분만.

주세요.

5분만.

주세요.

5.. 5분만.

아 주세요!

3분, 3분!

아 주시라구요.

아 3분도 안..

아 주세요!

3분, 3분. 어! 도깨비다!

어? 어흐..

역시 집에는 애들이 있어야 사람 사는 집 같고 그러네.

명부는? 더 안 왔지?

왔으면 얘기했지.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할 작정인지.

너 그때 너네 찻집 문 열고 들어왔던 남자 기억나?

어떻게 잊어. 근데?

인간의 간절함은 못 여는 문이 없고, 때론 그 열린 문 하나가 신의 계획에 변수가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찾아 보려고, 간절하게. 내가 어떤 문을 열어야 신의 계획에 변수가 될 수 있는지. 백 년이 될지 열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 아이 옆에 있는 선택을 해보려고. 뭐 그러다 어떤 문을 열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내 방문만 아니기를 바란다.

근데 신의 계획에 변은 좀 치사하지 않냐?

쓰읍!

신이 그 자의 그걸 막을 이유가 뭐야?

나 방금 심금이 좀 울렸거든?

삼촌들!

나두, 나두, 나두, 나두, 나두, 나두, 나두, 나두!

자 찍습니다.

아잇!

에이, 뭐 해요 안 비켜주고. 둘만 한 장 박아줍시다.

싫어, 내가 먼저 앉아 있었어!

찍을게요.

질문이 있어. 대답하면 비켜주지.

아후, 또 뭔데요?

★

폭풍 후진 하는 거(자동차 운전), 제도샤프로 수학 문제 푸는 거, 대화할 때 웃어 주는 거, 걸을 때 길 안쪽으로 해주는 거, 우리 사장님은 뭘 좋아할 지 몰라요. 다 준비하세요.

뭐 하는 거야, 아까부터? 백만 년 만에 연락 해놓고?

위험하니까 인도 안쪽으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할 말 있다면서요, 그거부터 해요. 궁금해 죽겠으니까.

종교 무교.

네? 뭐 이렇게 말을 잘해? 혹시 뭐 종교 있어요?

그걸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못 알려드린 것 같아서.

근데 아까부터 왜 자꾸 웃어요? 나 뭐, 화장 이상해요?

그보다, 저 안 귀엽나요?

어디가요? 크리스마스에 나 왜 안 만났어요? 그 날 전화했으면 귀여웠죠. 뭐 했어요? 무교라 교회도 안 갔을 거고.

성탄절은 좀 그렇잖아요. 암만 그래도 누군가 태어난 날인데.. 일종의 상도덕이랄까.. 근데 저 종교 무교인데 진짜 안 귀엽나요?

어후, 소름.

뭐 그렇게까지..

아니요, 데자뷰요. 허어, 나 이 장면 어디서 있었던 것 같아. 우와 생생해라. 어우 소름 돋아.

★

안 바래다주셔도 되는데.

진작 얘기하지, 왜 다 오니까 얘기해.

이따 봐요. 어? 저승 아저씨다. 저희 가게 매상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거든요, 저분이. 누구와는 달리.

참, 닭 한 마리 얼만데? 가게를 통째로 다 사버릴까 보다.

에이, 닭 피 무서워하면서. 뒷조사할 때 다 봤거든요, 책애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저 멀리 하는 거야.

잠깐, 그래서 그때 나 닭집 알바 붙여준 거였어요? 나도 멀리하려고?

언제 적 얘기를..

맞네, 다 그런 맥락이었네. 난 그것도 모르고.. 됐구요, 알았으니까 가세요. 난 여기서 천년만년 살 테니까 나 찾지 마시구요. 겁쟁이.

뭐, 뭐 뭔쟁이? 하, 나 그런 소리 처음 들어. 진짜 처음이야 진짜. 백성들이 나한테, 어? 우와! 만세! 너 내가 얼마나 용맹한지 보여줘? 허!

어딜 들어가요? 우리 사장님 보통 분 아니시란 말이에요.

혹시 너 눈칫밥 먹인다는 자식이 혹시 저 분이니?

으흐흐, 다 들려요, 사장님.

내 목소리 몰라? 잊을만한 목소리가 아닌데, 그 때 그 전화?

아하하, 다 들려. 닥쳐!

그랬어?

진짜 또 보네요. 두 분이 친구인 것도 놀랍고. 너 찾으러 왔었거든, 전의 가게로.

아, 그러셨구나. 어디까지 얘기한..

별 말 안 했어.

어, 안 하더라. 그래서 아직 정체를 몰라.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실례인 줄 알면서 왜 묻습니까?

허어, 그러면서 은근슬쩍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은근슬쩍이 아니라 대놓고 안 한 건데?

그러면서 말을 막 놓네? 왜지?

왜지? 보기보다 많아요, 나이. 보다 복잡한 사람이라.

자자, 적당히 드셨으면 가세요, 곧 손님 몰릴 시간이에요.

아직 다 안 먹었어.

아니야, 너 다 먹었어. 너 이제 제발 집에 좀 가. 너 때문에 여기 분위기 너무 이상하잖아!

손님? 손님도 같이 나가세요! 일어나요, 두 분 다! 얼른!

싫어!

다음식 x는 무엇이냐, x는 무엇이냐지?

뭐하냐?

넌 여자를 너무 몰라.

넌 답을 모르는 것 같은데?

술이나 마셔. 흠, 흠! 저기요! 김선 씨! 여기 맥주 두 잔 더 부탁드립니다.

누구?

맥주 두 잔..

잠깐 저 좀 보시죠? 밖에서 따로.

아, 네 그러시죠!

★

뭐예요?

뭐가요?

좀 전에 나한테 김선 씨 라고 했잖아요.

그게 왜?

내 이름 어떻게 알았어요? 나 내 본명 말해준 적 없는 거 같은데?

미안한데, 오늘 우린 안 만난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니까요? 왜 아냐니까?

김써니씨 라고 했는데.. 아 많이 추우시죠? 제가 금방 코트..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무언가 잘못 되었어. 아마 당신부터인 것 같은데..

(왜 그래요?)

대체.. 왜..